



남원시가 기업 및 남원농협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식품산업 선진화와,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라는 목표를 내놓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남원시 농산물 판로 확대 귀추

### 4자간 업무협약 체결

남원시가 기업 및 남원농협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식품산업 선진화와,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라는 목표를 내놓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원시는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환주 시장, (주)지엠에프 김호수 대표, 풀무원식품(주) 박남주대표, 남원농협 박기열 조합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는 남원시는 (주)지엠에프 냉동밥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

인 행정지원을, 남원농협은 (주)지엠에프에 품질 좋고 경쟁력 있는 가격의 쌀 공급을, (주)지엠에프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물품 우선구매를, 풀무원식품(주)는 생산품에 대한 유통 책임 및 지역농산물 활용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해마다 쌀 소비량의 감소가 계속되면서 쌀 소비의 판로 개척이 농민들의 가장 큰 고민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확대되는 지역 농산물 판로가 어려운 농촌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지역 쌀 소비 촉진에 보탬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며, (주)지엠에프의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는 계기가 생각한다. 또한 더 나아가 기업과 농업이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과정으로,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체적인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주)지엠에프 냉동밥 투자사업은 연간 쌀 1,500t에서 최대 3,000t 소비계획(연간 25~50억 규모)으로 2017년 7월 전북도, 남원시와 투자협약을 시작하여 2018년 8월 생산 공장 완공을 목표로 50여명의 신규고용 창출 및 민간사업비 약 1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교육 봉황인재학당 개원식 성황리 개최

### 인재양성 요람 기대

임실교육 백년지대계의 중심이 될 '봉황인재학당' 개원식이 27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임실봉황인재학당 앞 야외무대에서 열린 개원식은 심민 군수를 비롯해 문영두 군의장, 애향장학회 이사, 내빈, 학부모 및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봉황로 301 번지 옛 기술센터 자리에 군비 45억원이 투입되어 등지를 뜬 '봉황인재학당'은 개원전부터 다음 세대를 이끌 인재양성 요람으로 큰 기대와 호응속에 문을 열었다.

당초 지역 중학생 15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학부모, 학생의 뜨거운

참여 열기로 현재 173명의 중학생이 수업에 매진하고 있다.

방과후 중학생을 대상으로 서울 및 인근 도시에서 맹활약 중인 유명 강사를 초빙해 국·영·수를 총 3시간 집중 교육하고 외부 탐방 및 체험활동을 매학기 진행한다.

진로 및 인성강좌를 비롯해 공부법 특강과 독서지도까지 계획하고 있어 국·영·수를 망라한 종합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버스 2대와 택시 2대를 이용한 안전한 통학서비스 지원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 4찬 급식은 학부모와 학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또한 5,934㎡ 부지에 지상 3층 규모

로 9개 강의실, 세미나실, 조리실 및 식당, 휴게실 등의 맞춤형 최신시설과 편의시설이 갖춰졌다.

인재학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에는 커뮤니티와 입소문을 타고 인접 도시 학부모의 상담요청이 늘고 있으며 일부는 교육을 위해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최근 사교육 과열로 인해 한 학생당 교육비가 최소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국·영·수 교육을 비롯해 안전한 통학,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재학당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경기 불황으로 주머니가 얇아진 학부모에게 더 없이 큰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 장류축제 3년 연속 대상

### 축제콘텐츠 대상 축제 경제부문

순창 장류축제가 2018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축제 경제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축제 중 가장 경제성 높은 축제로 이름을 알렸다. 이번 수상은 3년 연속 수상이다.

올해 6회제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은 지난해 열린 축제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선정해 전파하고 축제와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상한다.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관하고 한국관광공사 후원해 진행하며 전국 2천여 개의 축제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장류축제는 고추장, 된장, 청국장 등 지역의 전통자원을 축제의 테마로 구성, 70여종의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 먹거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준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 지역주민과 귀농인들의 참여를 통해 축제를 만들고 고추장 등 장류는 물론 농·특산물 판매 등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노력한 점이 인정 받았다. 특히 지역향토자원인 장류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소스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 순창세계소스박람회와 발효소스도굴에서 진행된 다양한 전시 체험행사도 순창 장류축제의 경제성을 두드러지게 한 강점으로 평가됐다.

관련해서 시상식은 27일 서울 더 케이호텔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자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황주수 군수는 "장류축제는 우리민족의 전통 음식인 고추장 등 장류를 소재로 하는 전국 유일의 축제이고, 단순히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스와 발효산업 선점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올해에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해서 순창의 장류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해 제13회 장류축제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순창점동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매아리

### 남원시 블로그기자단 위촉식 가져

2018년 남원시 블로그 기자단 27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남원 곳곳을 누비며 문화와 관광 등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게 될 남원시 블로그 기자단 11명은 주부,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시민들이 선발되어 위촉장을 수여받고, 주요 역할과 활동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기자단은 올 한 해 동안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축제를 취재하고 맛집, 명소 등을 둘러보며, 남원의 매력을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홍보하게 된다.

시는 블로그 기자단 활동을 통해 남원의 아름다움과 즐거움, 자랑거리 등을 발굴하여 널리 홍보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경찰서, 방법진단 실시

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 강진파출소는 27일부터 2일 간 강진면 풍가(4개소), 폐가(1개소)에 대하여 방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신하기를 맞은 청소년들의 비행 및 여성 대상 범죄예방 등을 위해 방법 CCTV 사각지대 등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지점을 중점적으로 수색하고, 풍·폐가 출입문 잠지 점검 및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주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한 방법 진단을 하였으며, 방법진단 후에는 위험등급을 분류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구립면 고령어르신 무료사진촬영·이미용 봉사

순창군 구립면 고령어르신 100여명이 27일 무료사진촬영을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 향상을 위한 선물을 받고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

이날 봉사행사는 구립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한 행사로 8개 기관 및 봉사단체가 함께 했다.

순창군 사진동호회에서는 장수사진 무료촬영을 진행했고 아모레퍼시픽순창 카운셀러회원들은 무료 메이크업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이미용협회의 헤어디자이너 봉사활동도 눈길을 끌었다.

순창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귀반사, 서금요법, 발마사지, 네일아트, 이미용, 테이핑 요법 등의 봉사를 진행해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보건지원원에서 진행한 치매예방교육 및 운동, 구립면 보건지소의 한방침, 한방뜸 치료도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문화원 독도사진 초대전 개최

임실문화원(원장 최성미)이 독도사진 초대전을 개최하여 지역에서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독도사진전에 초대된 안동립 사진작가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3년간 17차례 독도에 들어가 70일간 독도 주민수소에 머물면서 현지를 조사하고 독도지도도를 만들어 발표하는 등 꾸준한 독도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에 전시된 독도사진 50여점은 한눈에 독도의 구석구석을 이해하고 사실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독도가 특별한 섬이 아닌 사람이 사는 보통의 섬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

안씨는 "독도 지명을 과다하게 풀이하여 돌설명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독도는 경관이나 자연생태가 일반 보통의 섬과 동일하다"며 강조했다.

이어 "독도는 생명수인 우물이 있고, 사계절 꽃이 피며, 나무가 푸르게 자라고, 온갖 새가 등지를 틀고 생명을 잉태하고, 바람과 파도가 물려와 깎고 빛어낸 아름다운 화산섬인 것"



이라고 말했다.

독도 사진전을 열고 있는 임실문화원은 올해 문화학교(서예, 한국화, 오카리나), 문화유산발굴사업, 소식지 발간, 문화유적지 탐방, 문화대학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운영 중에 있다.

임실문화원 최성미 원장은 "이번 독도사진전을 통하여 독도가 소중한 우리 땅임을 바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독도사진전은 3월까지 임실문화원에서 열린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